

보도 일시	<b>2023. 2. 26.(일) 09:00</b>	배포 일시	2023. 2. 24.(금) 18:00
담당 부서	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	책임자	과장 박영혜 (044-203-3011)
		담당자	주무관 곽승한 (044-203-3016)

## 국민께 정책 더 잘 알리기 위해 38개 부처 통신원들이 뭉쳤다

- 새해부터 확 달라진 「K-공감」, 정부 최초 통신원 신설
- “윤석열 정부 정책이 궁금하면 「K-공감」을 보세요”

38개 중앙행정기관의 「K-공감」 통신원 38명이 뭉쳤다.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2월 24일(금), 한국언론진흥재단(서울 중구) 회의실에서 「K-공감」 부처 통신원 회의를 개최했다.

이날 회의에서는 부·처·청·위원회 소속 통신원 38명이 참석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부 정책의 홍보방안과 통신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.

### 새해 확 달라진 「K-공감」, 생생한 정책정보 제공 위해 정부 최초 통신원 신설

「K-공감」은 지난 2023년 1월 신년호부터 제호, 표지디자인, 콘텐츠의 세련된 변화로 정부간행물의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기 위해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. 1면 커버스토리에 승부를 걸고 내용의 퀄리티도 일반 주간지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높였다. 커버스토리로는 현장 공무원, 정책수혜자, 글로벌 K-피플 등 그 주의 중요 인물을 소개하고, 「K-공감」을 보면 정부 정책정보를 실감나고 짜임새 있게, 정확히 알게 한다는 게 개편 취지다.

이후 더 생생한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1월 말에 정부 최초로 각 부처 정책에 밝은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신원을 선발했다. 「K-공감」은 부처 통신원과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면서 정책 현장과 밀착해 더욱 빠르고 깊이 있는 정책정보를 국민께 전달할 계획이다.

통신원들은 ▲ 「K-공감」 커버스토리 및 표지인물 소재, ▲ 장·차관, 현장 공무원, 정책수혜자 등 인물 이야기, ▲ 정책현장 이모저모 등 그간 잘 드러나지 않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책 관련 콘텐츠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.

### “대한민국 정책 흐름이 궁금하면 「K-공감」을 보세요”

이날 회의에서 문체부 박용철 국민소통실장은 “통신원은 ‘부처별 K-공감 기자’로, 정책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.”라며, “정부 정책이 제대로 국민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「K-공감」과 부처 통신원이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”을 당부했다. 아울러 “새로워진 「K-공감」을 보면 대한민국 정책 흐름을 짜임새 있게 알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부처 통신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「K-공감」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해양수산부 통신원 곽동기 주무관은 “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정보를 알리는 역할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.”라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했다.

- 붙임 1. 「K-공감」 부처 통신원 회의 사진  
2. 「K-공감」 개편 전후 표지  
3. 「K-공감」 최신포(2. 20.) 표지





2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'K-공감 부처 통신원 회의'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
2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'K-공감 부처 통신원 회의'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.



「K-공감」 개편 전 표지(위)



「K-공감」 개편 후 표지(위)

